



코리아 축구 대표선수 박지성 용주사 가던 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가 7월 6일 바쁜 일정을 쫓아 용주사를 참배했다. 용주사 스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법당을 나서고 있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 용주사에 기증한 스위스전 유니폼과 독일 월드컵 공인구 팀가이스트.

어느 절과 다름없이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백중 49일기도가 한창인 화성 용주사에 세계적인 축구스타 박지성이 "왔다". 대웅보전에서 영단을 향해 신도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영단에 모셔진 위패 중에는 박지성 선수의 할아버지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봄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진행되는 와중 할아버지의 별세소식을 들은 박지성 선수는 귀국하는 즉시 할아버지가 모셔진 용주사를 찾아 슬픔을 견디며 인사를 올렸다. 2002 한일월드컵으로 뜬 유명세를 타고 일본 교토 퍼플상가와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을 거쳐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자리 잡은 후 귀국 첫 걸음에 바로 용주사 참배였다. 용주사는 수원에 살고 있는 박지성 선수의 부모가 자주 들러 기도하는 절이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7월 6일, 짝 여진 일정을 쫓아 '한국의 자랑' 박지성 선수가 아버지 박성

종지와 어머니 장명자씨, 소속 에이전트 매니저와 함께 다시 용주사를 찾았다. 박 선수가 부모님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신도들의 반가운 함성이 한꺼번에 터졌다. 청바지와 캐주얼한 셔츠를 입은 박지성 선수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15도 내려보기'를 유지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조용한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카리스마는 어찌지 못했다. 극성 아줌마 팬들을 피해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이 있는 연화실로 자리를 옮긴 박 선수는 가지런히 손을 모아 합장인사를 했다. 주지스님은 조부 상(喪) 때 기도를 올려준 스님에게 낮이 익어 한결 친근한 표정이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정호 스님도 박 선수가 기특한 듯 흐뭇한 표정으로 불명부터 묻는다. "불명이 5개나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 머뭇거리던 박지성 선수가 속스러운 듯 이렇게 대답하며 웃는다. 옆에 있던 아버지 박성종씨가 아들을 거들었다. "중국이라고 영표하고 지성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무진 애를 쓰나 봐요. 주지스님께서 마음 다잡도록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박지성 선수에게 '만(卍)'자 목걸이를 선물

## “권자처럼 세계 주름잡는 선수 되길”



박지성 선수가 강봉 스님에게 직접 사인한 축구공을 전달하고 있다.

로 준비했습니다. '만' 자는 그 기운이 사방세계로 뻗어 온 우주법계를 두루 감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걸고 불교의 참 뜻을 늘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 자처럼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름잡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법문을 들은 박지성 선수는 용주사의 상징 호행기념관 법당으로 자리를 옮겨 20여 용주사 스님들과 만났다. 평소에는 정전에 몰두하는 스님들이지만, 박지성 선수를 만나기 위해 잠시 짬을 낸 것이다. 박지성 선수는 이번 방문에 독일월드컵에서 스위스와의 경기때 입었던 유니폼과 독일월드컵 공인구

팀 가이스트 사인볼을 가져왔다. 스님들에게 늘 받기만 하다가 용주사에 뭔가 줄 수 있어 기쁘다는 박지성 선수만의 대중공양인 셈이다. 아버지로부터 스님들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박지성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공인구에 직접 사인한 공 30개를 용주사에 선물했다. '박지성 선수 독일월드컵 법회'라는 플래카드가 달린 법당에서 약식 법회가 진행됐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처님을 향해 합장한 박지성 선수. 흐트러지지 않은 '15도 내려보기' 자세는 겸손하면서 당당하다. 이국땅 영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겉 없는 동양인'으로 자리잡은 그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이 박지성 선수에게 '만' 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다.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와 아버지 박성종 어머니 장명자씨.

의 강인한 내면이 엿보인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무엇을 기원했을까. 법회가 끝나자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스케줄이 바쁜 박 선수는, 박수를 받으며 용주사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쳐야만 했다. 박지성 선수를 마중하며 한 신도가 자긍심이 가득한 말로 아쉬움을 달랬다. "박지성 선수를 절에서 보니 너무 뿌듯하네. 이래서 젊은 불자를 키워야 한다니까." 화성/글=박봉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시종일관 '15도 내려보기'...겸손·당당함 묻어나  
독일 월드컵 공인구·스위스전 유니폼 사인 선물

##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들에게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 구입안내

- 구성: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상하권 총 80,000원(날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과년호 한정판매!!

- 2000년~2002년(6집~8집): 50,000원
  - 2003년~2004년(9집~10집: 상·하권) 70,000원
-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